조선후기 향리 후손의 거주지 이동과 사회적 지위

정 성 학*

1. 머리말
2. 분석 대상
3. 거주지 이전과 정착
4. 사회적 지위와 혼망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향리는 향역을 수행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조선후기 향리들이 수행했던 향역은 개인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기도 했다. 향리들은 지방관청의 제반 업무를 대행하며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향리 후손들이 향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향리의 정원 즉 이액(吏額)이 정해져있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지방 관청의 업무가 비대해지며 향리들의 수도 늘어났다. 관청의 업무 증대는 곧 향리들의 사회적 지위상승과 연결되고 점차 경쟁은 치열해졌다. 향리의 수는 늘어났고 결국 중앙에서 나서 이액을 제한했다.[1] 각 고을별로 이액이 정해져있었고 향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일부는 향역을 수행하지 못해 더 이상 향리가 될 수 없었다.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1) 장동표, 1985「18·19세기 吏額增加의 현상에 관한 硏究」『釜大史學』6.

향리가 될 수 없었던 향리 후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 하나는 읍치에 남아 다양한 일을 하며 어떻게든 관과의 연결고리를 남겨두는 것이다.[2] 다른 하나는 읍치에서 외촌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과거 공부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향리들이 거주지를 외촌으로 옮기는 것을 퇴촌(退村)이라 하는데 이런 현상은 조선 전기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조선 전기 많은 이족 후손들이 퇴촌을 통해 사족으로 성장해나갔다.[3] 조선후기 향리 후손들의 퇴촌에 대해서도 기존 학계에서 관심을 가진바 있다. 거창(居昌) 향리의 퇴촌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향리들의 퇴촌을 신분상승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4] 반면 안동 향리의 거주지 이전을 살펴본 연구는 퇴촌이 신분상승을 위함이 아닌 향역을 수행할 수 없었던 향리 후손의 생존 전략으로 보았다.[5] 두 연구가 바라보는 향리의 거주지 이전 이유는 달랐지만, 거창과 안동의 퇴촌 향리들 모두 공고한 양반의 계열에는 끼지 못했다는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창의 향리 후손은 향안(鄕案)에 결국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안동의 향리 후손은 혼반이 결국 안동 저명 양반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조선후기 다양한 계층에서 집거촌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조상의 후손들이 한 마을에 모여사는 곳을 흔히 동성촌락이라고 부른다. 향리 후손들 역시 읍치가 아닌 특정 마을에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의 명문 향리 가문에서 태어난 권창시(權昌始)는 18세기 후반 풍산면(豊山面) 막곡(幕谷)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그 후손들이 20세기 초반까지도 그곳에서 세거했다.[6] 본 연구도 대구의 한 향리 후손의 거주지 이전과 그 후손들의 정착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이들이 세거한 지역을 동성촌락이라고 불러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럽다.

동성촌락의 정의는 여전히 통일되지 않은 듯하다. 가장 넓은 의미의 동성촌락

2) 정성학, 2019「조선후기 공생(貢生)의 의미와 공생층 증가양상」『역사와 현실』111.
3) 정진영, 1998『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4) 이훈상, 1990『朝鮮後期의 鄕吏』, 일조각.
5) 정성학, 2018「조선 후기 향역 이탈자와 그들의 대응: 안동권씨 동정공파 사례」『朝鮮時代史學報』84.
6) 정성학, 2014「조선후기 안동 상층 鄕吏의 鄕職繼承과 존재양상」『韓國史論』60.

은 특정 성관이 전체 호의 10%만 넘는 것이다.[7] 반면 가장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동일 인물의 후손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적 위세나 선조의 권위를 통해 자손의 권위가 보장되는 촌락을 의미한다.[8] 최근에는 이 두 연구의 중간 정도인 동족이 특정마을에 세거하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을을 동성촌락으로 이해하고 있다.[9] 본 연구는 동성촌락 자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에 세 정의 모두를 염두에 두고 읍치를 떠난 향리 후손들을 추적해 볼 것이다. 특정 향리 후손이 읍치를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시점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리 후손들의 정착을 바라보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목표이다. 가장 좁은 의미의 동성촌락을 형성한 것이 양반들의 거주형태라면, 가장 넓은 의미의 동성촌락은 평민의 그것에 가깝다. 세 가지의 동성촌락 가운데 퇴촌한 향리 후손들의 집거지는 어디에 가장 비슷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8세기 이후 여러 집단이 한 마을에 집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조선 후기 주거 형태로 규정했다. 아직까지 퇴촌한 향리 후손들이 세거한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연구는 없었다. 향리의 주거 형식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동성촌락을 형성했던 수많은 계층 가운데 향리 마을의 특징을 규정하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대구에는 향리 관련 선생안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히 누가 어떤 보직을 담당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대구부의 호적의 직역 분석을 통해 대충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대구 호적에는 다양한 향리 관련 직역이 등장한다. 크게 근무처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바로 대구부(大丘府) 관사에 근무한 향리들의 직역인 부향리(府鄕吏), 부인리(府人吏), 부리(府吏), 안일호장(安逸戶長), 호장(戶長), 부기관(府記官) 등이 있다. 또 감영의 향리들 직역도 다수 기재되어 있다. 감영

7) 善生永助, 1933『朝鮮の聚落』後篇.

8) 오영교, 2004『강원의 동족마을』, 집문당.

9) 이해준, 1996『조선시기 촌락사회사』민족문화사; 정진영, 1998 앞의 책.

의 향리들은 순(巡)이나 영(營)을 사용한다. 순영리(巡營吏), 순리(巡吏), 영인리(營人吏) 등으로 등장한다. 그 외에도 중영(中營)과 진(鎭) 향리들이 등장하지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호적에 등장하는 여러 직종의 향리 가운데 대구부 관청에서 근무한 향리 직역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구부 관청에 근무한 향리는 다양한 성관에서 배출되었다. 그 중 달성(達城) 서(徐)씨[10]는 꾸준히 많은 수의 향리를 배출한 성씨이다. 아래 〈표 1〉은 대구의 읍치에 해당하는 두 면(面)인 동상면과 서상면이 모두 존재하는 식년의 향리 담당 성관을 모은 것이다.

〈표 1〉 대구부 향리 담당 성관

식년	전체 향리수	달성 서씨	주요 성관
1684	6	3 (50%)	密陽 朴 1, 大丘 裵 1
1732	71	2 (3%)	金海 金 13, 密陽 朴 6
1748	55	7 (13%)	金海 金 7,月城 崔 7
1762	58	8 (14%)	密陽 朴 6, 金海 金 4
1789	24	8 (33%)	金海 金 8, 密陽 朴 8
1795	39	9 (23%)	金海 金 10 月城 崔 7
1825	55	13 (24%)	金海 金 5
1858	82	18 (22%)	金海 金 15, 水原 白 12

위의 〈표 1〉을 통해 달성 서씨는 김해(金海) 김(金)씨와 꾸준히 가장 많은 향리를 배출했음을 알 수 있다. 1732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가장 많은 향리를 배출한 성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8세기 후반 이후 20% 이상을 배출하는 것을 통해 조선후기 달성 서씨는 대구의 주요 향리 성관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10) 대구 호적에는 대구(大邱) 서(徐) 씨와 달성(達城) 서(徐) 씨가 존재한다. 달성은 대구의 옛 이름이고 동일한 인물도 식년별로 대구와 달성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따라서 달성 서씨와 대구 서씨를 동일한 성관으로 이해했다. 본고에서는 달성 서씨 족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달성'으로 쓰겠다.

그러나 서씨의 본관이 모두 달성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동일 집단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달성 서씨 안에도 수많은 파(派)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향리들은 가계 내 결속력이 낮기 때문이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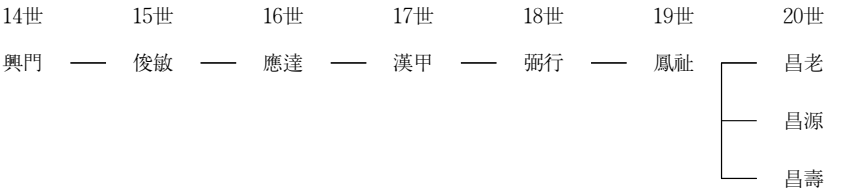
1825년에 등장하는 달성 서씨 향리 직역자들의 파를 추적해 보면 모두 달성 서씨 판서공파이며 가계를 거슬러 추적하면 모두 흥문(興門)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12] 흥문은 달성 서씨 14세손으로 1572년에 태어나 1652년에 죽었다. 현존하는 첫 대구 호적이 1681년이라 흥문이 주호로 등장하진 않는다. 대신 그의 손자 영달(永達)이 1681, 1684년 호적에 등장하고 그의 사조(四祖) 직역을 통해 흥문을 추적해볼 수 있다. 영달은 기관(記官)으로 등장하고 그의 부(父) 득민(得敏)은 안일호장(安逸戶長), 조부 흥문은 가선대부(嘉善大夫), 증조부 종선(從善)은 안일호장(安逸戶長)으로 두 식년에 기록되어 있다. 흥문은 가선대부로 기록되어 향역을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의 부(父)와 아들이 안일호장을 역임한 것을 생각하면 명문 향리 가계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가계는 흥문의 5세손인 봉지(鳳祉) 후손들이다. 봉지의 후손의 사례를 통해 향리 후손의 거주지 이동과 정착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거주지 이전과 정착

봉지는 호적에 주호나 주호의 구성원으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아버지 필행(弼行)은 향리를 역임했음이 확인되나, 그의 조부 한갑, 증조부 응달은 공생으로 등장하고 거주지 역시 서상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계속 읍치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11) 정성학, 2014 앞의 논문.

12) 『達城徐氏世譜』, 1998. 이하 달성 서씨와 관련한 내용은 이 족보를 참조해 서술하였다.



〈그림 1〉 흥문 후손의 가계도

〈표 2〉 봉지 조상 직역

	거주지	직역1	직역2	직역3
興門		嘉善大夫		
俊敏		通政大夫		
應達	서상면	貢生		
漢甲	서상면	貢生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弼行	서상면	鄕吏	貢生	老職嘉善大夫行龍驤衛副護軍
鳳祉		學生		

* 비고 : 호적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 흥문, 준민, 봉지의 직역은 그들 후손의 사조 직역을 통한 것이다.

봉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창로(昌老), 창원(昌源), 창수(昌壽)이다. 호적을 통해 이들의 직역과 거주지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맏아들 창로가 가장 먼저 읍치를 떠난다. 창로는 27세인 1747년 호적에 처음 등장하는데 하수서면(下守西面) 검암리(檢岩里)에서 유학으로 등장한다. 정확히 언제 하수서면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창로의 배우자와 거주지 이전이 밀접하게 연관 있어 보인다. 창로는 김여웅(金汝雄)의 딸과 결혼을 했다. 호적에서 김여웅을 찾을 순 없다. 대신 김여웅의 아버지 즉 창로 처의 조부(祖父)인 김인열(金仁說)이 1738년 하수서면 서변입암리(西邊立岩里)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봉지의 막내아들 창수는 1756년 호적을 통해 읍치에서 향역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과 3년 뒤 1759년에는 조암면(租巖面) 일리(一里)에서 등장한다. 이후 꾸준히 유학 직역을 사용하며 같은 면리에 등장하는 것이 확인되어 그곳에 계속 거처했음을 알 수 있다. 조암면 일리 역시 창수와 전혀 무관

한 곳은 아니었다. 창수는 월성 최씨 최태영(崔太永)의 딸과 혼인을 맺었는데 최태영은 조암면 일리 호적에 등장한다. 즉 창수도 그의 맏형과 같이 처가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다. 처향(妻鄕)으로 이거하는 것은 조선전기에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많은 관직자들이 조선전기 정치적 격변기에 본향(本鄕), 처향(妻鄕), 외향(外鄕)으로 낙향했고 이들이 이후 사족으로 성장했다.[13] 부계중심의 가족질서가 정착한 조선후기에는 이런 풍습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8세기 향리 후손들은 읍치에서 외촌으로 이거할 때 처변을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것 같다. 봉지의 세 아들과 그 후손들의 조암면 정착은 서상면에서 조암면으로 거주지를 옮긴 1756~1759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14] 창수가 조암면에 등장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창원도 조암면 일리에서 등장한다. 또 하수서면으로 이거했던 맏형 창로는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했는지 36년 뒤 조암면 일리 호적에서 돌연 등장한다. 삼 형제의 조암면 일리 정착 이후 이들의 후손 22명 가운데 17명이 조암면 일리에서 호적에서 발견된다. 대구호적의 현존하는 마지막 식년인 1876년에도 많은 수의 봉지 후손이 조암면 일리에서 발견되는 것을 미루어보면 최소 100년 이상 조암면에 세거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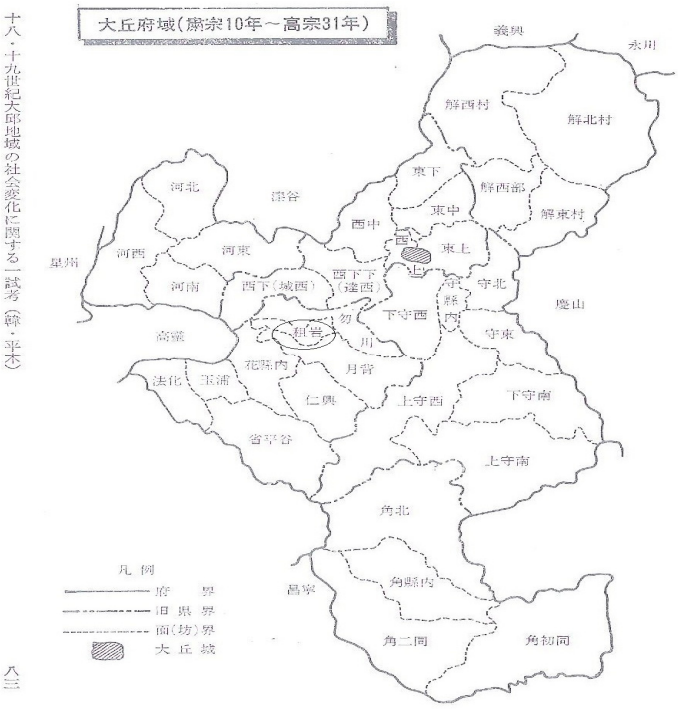
〈표 3〉 창수 형제의 직역과 거주지

식년	이름	직역	거주면	거주리
1747	창로	幼學	下守西面	檢岩里
1756	창수	鄕吏	西上面	後洞內里
1759	창수	幼學	租巖面	一里
1762	창수	幼學	租巖面	一里
1774	창원	通德郞	租巖面	一里
1783	창로	幼學	租巖面	一里
1795	창원	通德郞	租巖面	一里

13) 정진영, 1998 앞의 책.

14) 창수는 1756, 1759, 1762년에는 창의(昌義)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등장한다. 그러나 창수, 창의는 사조(四祖), 생년(生年), 처(妻)가 모두 같고, 1783년에는 개명을 하여 창수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다만 개명 전 이름은 호적에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창수가 개명을 하여 창의가 되었고, 족보에 기재되어 있는 창수를 대표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조암면은 당시 영암면(靈岩面)으로도 불렸다. 조암면은 대구 호적에 1774년까지 영암면 혹은 영암방면(靈岩坊面)으로 등장하다 그 이후부터 조암면으로 통일된다. 그 마을에 볏섬과 같은 모양의 바위가 있어 조(租)를 써 조암면이라 부르기도 하고 영험이 있는 바위라 영(靈)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15] 아래 〈그림 2〉가 조선후기 대구 지도이다.[16] 빗금친 동그라미로 표현된 곳이 대구의 읍치에 해당하는 서상면과 동상면이고 읍치의 서쪽에 조암면이 있다. 조암면은 대구 읍치에서 서쪽으로 약 30리(里)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현재는 달서구의 월배이다.[17]



〈그림 2〉 대구부 지도

15) 대구광역시청, 『지명유래총람』. 〈http://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66#none〉

16) 한영국, 1976 「十八十九世紀大邱地域の社會變化に關する一試考: 大邱府戶籍の「新戶」を中心に」『朝鮮學報』 80・83면에서 재인용.

17) 『大邱府邑誌』(奎10810).

창수가 정착하기 전 조암면은 어떤 곳일까. 사실 조암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조암면에는 호적뿐만 아니라 경자년(1720)에 작성된 양안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봉지 후손이 처음 정착한 1759년보다 약 30년 전에 작성된 양안이지만 이 곳의 사정을 짐작하기엔 충분하다. 조암면은 수해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농토가 비옥한 곳이었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토지 소유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19] 창수가 조암면에 정착하기 전인 1756년 조암면 일리의 주호 성관구성이 아래 〈표 4〉이다. 총 82명의 주호가 등장하고 경주 최씨가 24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김해(金海) 김(金)씨와 성주(星州) 이(李) 씨가 각각 9호 등장한다. 그 외에 11개 성씨에서 22호를 배출했고 성이 없는 노비도 4호 존재했다.

〈표 4〉 1756 조암면 일리 성관 구조

성관	인원 수
慶州 崔	24 (29%)
金海 金	9 (11%)
星州 李	9 (11%)
丹陽 禹	8 (10%)
慶州 陣	6 (7%)
기타	22 (27%)
無	4 (5)
합계	82

마을 전체의 유학 비중도 그리 높지 않다. 전체 82호 가운데 총 25개호만 유학 직역을 사용했다. 경주 최씨가 가장 많은 10명의 유학을 배출했고 그 다음은 단양 우씨가 8명의 유학 주호로 등장한다.

18) 김용섭, 1995『증보판 조선후기농업사연구Ⅰ』, 지식산업사; 1993「조선후기 신분구성의 변동과 농지소유: 대구 조암방지역 양안과 호적의 분석」『東方學志』82.

19) 미야지마 히로시(김경태 옮김), 2009「유교의 제민사상과 소농사회론: 조선후기 대구 조암방의 사례」『국학연구』14. 조암면 양안의 분석은 연구별로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야지마 히로시의 논지를 따른다.

조암면 일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경주 최씨는 전체 주호 가운데 30%를 차지한다. 이 점은 경주 최씨가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관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마을에 사는 경주 최씨 24명은 성관은 같지만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갖진 않은 듯하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24명의 최씨 가운데 유학은 10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14명은 군관, 보인, 무임 등 군역을 수행하는 직역자가 더 많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차이나기 때문에 어쩌면 본관만 같은 남일 수도 있다. 따라서 조암면 일리에 거주한 24명의 관계를 추적해 보았다. 조암면 일리에 거주한 24명의 경주 최씨 사조 기록을 통해 24명 가운데 16명이 같은 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명에는 창수의 처조부도 포함이 되어있다. 이들 16명도 다양한 직역을 보유하고 있다. 유학은 그 절반인 8명밖에 없고 나머지 8명은 군관, 보인, 무임 직역을 사용한다. 즉 조암면 일리에 거주했던 경주 최씨는 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곳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성관이었지만, 개개인의 직역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경주 최씨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성씨는 바로 단양 우씨이다. 이들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지만 8명의 주호 모두 유학 직역을 사용한다. 이들은 인근 월촌(月村)에 거주한 단양 우씨 일족이다.[20] 대구 호적에서는 이들이 월배면(月背面) 상인리(上仁里)에 대거 등장한다. 조암면 일리에 거주한 우씨들과 동일한 항렬자(行列字)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단양 우씨 판서공파(判書公派)이다. 판서공파는 23세에 재(載), 24세에 진(鎭), 25세에 해(海)를 각각 항렬자로 사용한다. 두 지역의 단양 우씨 모두 판서공파의 항렬자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다. 즉 조암면 일리의 단양 우씨는 월촌에서 이거한 자들로 추측된다.

20) 월촌에 거주한 단양 우씨에 대해서는 김현영, 1999「조선후기 친족의 결속과 갈등의 한 양상: 大丘 月村 丹陽禹氏 宗契關聯文書의 분석」『고문서연구』16; 2002「조선후기의 재지사족의 정치적 성장과 '전통의 창출': 大邱月村丹陽禹氏의 養浩堂顯揚事業을 중심으로」『史學硏究』6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표 5〉 조암면 일리 최씨 직역

직역	인원 수
幼學	10
軍官	6
保人	2
武任	5
無직역	1
총	24

조암면 일리에서 수적으로는 경주 최씨, 사회적으로는 단양 우씨가 앞선다. 동시기 마을과 비교해 보면 조암면 일리의 성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 단성현 법물야면 이교리에서 동성촌락을 형성한 달성 서씨는 평민 출신 가계임에도 1762년 38.5%, 1780 50%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기록했다.[21] 19세기 중반 경주 최씨는 대구 해서촌면 대곡리 전체호수에서 45%, 지묘리에서 75%, 해서부면 봉무촌리에서 28%의 비중을 차지했다.[22] 평민 동성촌락으로 알려져 있는 해북촌 광리의 단양 우씨도 19세기 중반 이후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23]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조암면 일리는 경주 최씨와 단양 우씨가 가장 우위에 있었지만 두 성씨 모두 압도적이라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 경주 최씨는 마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그리 높지 않고, 단양 우씨는 등장 호 전체가 유학 직역이지만 전체 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 따라서 봉지 후손들이 이거하기 전 조암면 일리는 특정 성관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 않은 잡성촌에 가까워 보인다.

봉지 후손의 조암면 일리 정착과 그 성공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의 수적 확대 뿐만 아니라 타 성관과의 수적 우위도 반드시 검토해야만 한다. 이러한

21) 권내현, 2010「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민족문화연구』52.

22) 김경란, 2018「조선후기 동성(同姓)마을의 분화에 대한 연구: 경상도 대구부 경주(慶州) 최씨(崔氏) 동성(同姓)마을의 사례」『사림』65.

23) 김경란, 2017「조선후기 평민 同姓마을의 형성과 특징: 大丘府 解北村 廣里 禹氏 사례」『사학연구』128.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조암면 일리에 거주한 주요 성관의 호수(戶數)를 〈표 6〉에서 살펴보았다.

〈표 6〉 조암면 일리 주요 성관 호수 추이

	達城 徐 (봉지 후손)	慶州 崔	丹陽 禹	金海 金	淸州 韓	전체
1759	1 (1%)	24 (30%)	9 (11%)	7 (9%)	0	80
1762	1 (1%)	27 (36%)	11 (14%)	7 (9%)	0	76
1774	2 (3%)	28 (35%)	9 (11%)	6 (8%)	1 (1%)	80
1783	3 (4%)	24 (28%)	9 (12%)	10 (12%)	1 (1%)	85
1795	4 (7%)	15 (25%)	8 (11%)	6 (10%)	0	59
1798	3 (8%)	6 (16%)	6 (16%)	2 (5%)	0	38
1801	3 (7%)	7 (17%)	7 (17%)	1 (2%)	0	42
1810	4 (10%)	6 (14%)	11 (26%)	0	0	42
1813	4 (10%)	6 (14%)	12 (29%)	0	0	42
1825	5 (11%)	6 (13%)	11 (23%)	1 (2%)	0	47
1828	6 (12%)	5 (9%)	11 (22%)	2 (4%)	0	51
1831	7 (14%)	6 (12%)	12 (24%)	2 (4%)	0	51
1837	7 (14%)	6 (12%)	7 (14%)	2 (4%)	0	51
1858	9 (21%)	6 (14%)	3 (7%)	0	6 (14%)	42
1861	8 (19%)	6 (14%)	3 (7%)	2 (5%)	5 (12%)	42
1867	9 (22%)	4 (10%)	1 (2%)	5 (12%)	3 (7%)	41
1870	7 (17%)	5 (12%)	1 (2%)	7 (17%)	2 (5%)	41
1876	8 (30%)	3 (11%)	1 (4%)	0	4 (15%)	27

* 비고: 음영 처리된 곳은 해당 식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성관이다.

창수가 처음 조암면 일리 호적에 등장하는 1759년 이후 주요 성관의 호수 추이를 〈표 6〉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암면 일리에 거주했던 달성 서씨가 모두 봉지의 후손은 아니다. 창수가 처음 조암면 일리로 이거한 1759년에도 달성 서씨는 이미 여섯 호 등장하고, 그 다음 식년인 1762년 호적에도 6호가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봉지 후손들과 달리 판서공파가 아니기 때문에 본관만 같은 남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표 6〉에 등장하는 달성 서씨는 봉지 후손들만 모은 것이다.

조암면 일리는 1759년 이후 다양한 성관이 등장했다 사라진다. 창수가 처음 조암면 일리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는 1759년부터 약 40년간은 경주 최씨의 우세가 보인다. 특히 1759, 1762, 1774년에는 3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해 수적으로 다른 성씨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1795년부터 그 위세가 점점 약해지며 1798년에는 6호로 줄어든다. 그 비중 역시 30%를 넘던 경주 최씨는 19세기 이후 10% 초반 대에 머무르게 된다. 조암면 일리에 거주했던 경주 최씨들 중 두명은 조암면 이리(二里)에서 발견되고 일부는 아예 조암면을 떠나 감물천면(甘勿川面) 갈산리(葛山里)로 이주한 경우도 보인다.

반면 단양 우씨는 꾸준히 10명 안팎의 인원을 배출했다. 경주 최씨의 수가 줄며 1798년부터는 조암면 일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1810년부터는 경주 최씨를 제치고 가장 많은 호를 배출하며 전체 호의 30%에 가깝게 된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단양 우씨의 비중은 급격히 낮아져 19세기 후반에는 1호만을 배출하게 된다. 김해 김씨도 1759년부터 1795년까지 전체 호수의 10%에 가까운 호를 배출했으나 1798년을 시작으로 수가 급감하게 되고 결국 1810년에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다 1867년 5호 1870년에 7호를 배출하며 비중이 높아지지만 그 다음 식년에는 자취를 감춘다.

경주 최씨, 단양 우씨, 김해 김씨, 청주 한씨 모두 조암면 일리에서 흥망성쇠를 경험하지만, 달성 서씨는 꾸준히 성장했다. 1759년 창수가 처음 조암면 일리로 거주지를 옮긴 뒤 서서히 봉지 후손은 세를 키워나갔다. 처음에는 한 호밖에 없었던 봉지 후손은 1774년 둘째 형 창원이 합세해 2호가 되었고 그 다음 식년에는 다른 곳으로 퇴촌했던 창로까지 합세해 3호로 늘어났다. 느리지만 꾸준히 그 수를 늘려나갔고 조암면 일리에 처음 자리잡은 1759년으로부터 약 100년 뒤인 1837년에는 최다 성관으로 등극하게 된다. 마지막 식년인 1876년에는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8호를 배출한다. 그러나 조암면 일리에 정착한 봉지 후손들이 이 마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말하긴 어렵다. 30%를 넘은 식년이 1876년 단 한 식년밖에 없기 때문이다. 1876년을 제외하면 1870년에는 김해 김씨와 같은 수를, 그리고 경주 최씨와는 단 두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동성촌락을

형성했던 대구의 다른 마을과 비교해 보아도 자명해진다. 절대적인 수나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달성서씨 봉지 후손은 조암면에서 그 비중을 키워나가곤 있지만 확고한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는 없어 보인다. 이런 정착은 누대로 향리직을 역임하며 생긴 경제력이 큰 역할을 했음이 자명하다.

봉지 후손의 조암면 일리에서 정착을 실패라 볼 수는 없다. 다른 지역의 동성촌락도 형성까지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이상 걸렸다. 봉지 후손이 18세기 중반 처음 정착한 이후 10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다. 호적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19세기 후반 이후도 가세(家勢)를 더 확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봉지 후손은 꾸준히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봉지 후손 가운데 5명을 제외하면 다른 마을로 이거한 경우가 없다. 한 성관이 특정 마을에서 확고한 우위를 가지면 구성원 중 일부는 인근 마을로 확장해 나가고 적계, 서계에 따라 거주지 분화가 일어난다. 적계라 할지라도 특정 가계는 독자적인 동성촌락을 형성하지 못하기도 한다.[24] 한 마을에서 특정 성관이 주도권을 확고하게 지닌다 해도 결국에는 내부에서 권력싸움이 생겨 상하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지 후손은 창수가 조암면 일리에 거처한 이후 25명 가운데 5명만이 다른 곳으로 이거해갔다. 이런 추세라면 지속적으로 조암면 일리에 거주하는 봉지 후손의 수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1876년 이후의 호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거주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돌림자 사용을 통해 그들의 결속을 추측할 수 있다.

향리들은 양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문 내의 결속력이 약하고 그것은 돌림자의 사용 범위에서 드러난다.[25] 대구 향리들에게도 유사한 과정을 겪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흥문의 후손들의 돌림자와 사용 인원을 〈표 7〉에 나타내 보았다. 흥문의 아들, 손자 세대인 15, 16세에는 모든 인원이 같은 민(敏)과 달(達)이라는 동일한 돌림자를 사용했다. 그러나 17세에 돌림자 사용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18세 이후로는 돌림자의 범위가 급격히 줄어들다. 조선후기 향역을 쟁탈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다. 경쟁은 다른 성관과만 벌이는 것이 아니었다. 동일 성관 내에

24) 권내현, 2004「조선후기 호적과 족보를 통한 동성촌락의 복원」『대동문화연구』47.
25) 정성학, 2014 앞의 논문.

서도 경쟁이 필수적이었고, 향역을 수행하는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의 사회적 지위가 차이가 나며 자연스레 결속력이 낮아지는 것을 돌림자 사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 흥문 후손 돌림자 사용범위

	돌림자	전체인원	돌림자 사용인원
15世	敏	7	7 (100%)
16世	達	15	15 (100%)
17世	甲	35	26 (74%)
18世	來	64	22 (34%)
	佐	64	12 (19%)
	命	64	12 (19%)
	弼	64	9 (14%)
19世	應	114	32 (28%)
	聖	114	14 (12%)
20世	臣	163	23 (14%)
	光	163	19 (12%)
	有	163	18 (11%)
21世	義	200	27 (14%)
	九	200	25 (13%)

* 비고: 전체 인원의 10% 이상이 사용하는 글자만을 돌림자로 표시했다.

반면 읍치에서 외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향리 후손들은 사정이 다르다. 그들은 조상의 세거지가 아닌 새로운 곳으로 이거했기 때문에 똘똘 뭉쳐 여러 가지 사안에 대응해야만 했다. 봉지 후손의 항렬자 사용양상을 아래 〈표 8〉에 나타내 보았다. 달성 서씨 20세에 해당하는 창로, 창원, 창수가 조암면 일리에 정착한 이후 꾸준히 높은 결속력을 보여준다. 22세에 돌림자 사용인원이 50%이하로 떨어지지만 23세에 바로 회복하고 24, 25세에는 전원이 동일한 항렬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마지막 호적인 1876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23세까지이다. 24세 인물은 대부분 1876년 이후에 탄생했기 때문에 단 한명만 호적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24, 25세 인물들은 대부분 1876년 이후 혹은 20세기 초반의 인물이란 점이다. 이들이 꾸준히 동일한 항렬자를 사용한다는 점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도 조암면 일리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봉지 후손들의 결속력이 높은 반면 봉지 후손 외의 동족들과는 전혀 교류가 없어 보인다.

이런 다른 가계와의 낮은 결속력은 향리 후손의 집거지의 또 다른 특징이다. 동성촌락을 형성한 마을에서는 여러 계보가 함께 마을을 형성하기도 하고, 특정 동성촌락 근처로 동족들이 결집하기도 했다.[26] 많은 달성 서씨 판서공파 출신이 읍치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명도 조암면 일리로 이거해온 사람은 없었다. 조암면 일리 뿐만 아니라 조암면의 다른 마을로 이거한 경우도 전무하다. 양반가는 보통 선대의 저명한 조상을 계기로 촌수가 멀어져도 동족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반면 향리들은 그런 구심점을 잡아줄 조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것이다.

〈표 8〉 봉지 후손 돌림자 사용범위

	돌림자	전체인원	돌림자 사용인원
20世	昌	3	3(100%)
21世	聖	6	5(83%)
22世	烈	15	6(40%)
23世	周	15	9(60%)
24世	華	13	13(100%)
25世	仁	10	10(100%)

조암면 일리에서 높은 결속력을 보이며 성장해 나갔던 봉지 후손이지만 5명은 조암면 일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은 어떤 곳으로 어떤 직역을 사용할까. 조암면을 이탈한 5명의 정보를 아래 〈표 9〉에 기록해 두었다. 거주지 이전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다른 면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와 읍치인 서상면과 동상면으로 옮긴 사례이다. 석현과 관석은 각각 수현내면과 달서면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반면 다시 읍치로 들어간 자들도 있다. 석문, 영준, 우석은 다시 읍치로 들어가 영준은 향리가 되었고 석문 우석은 유학을 사용했

26) 김경란, 2018 앞의 논문.

다. 이들이 조암면 일리를 떠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읍치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지만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모두 돌림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8〉에 따르면 22세에는 열(列)을, 23세에는 주(周)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해당 돌림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석문을 제외하면 모두 족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료정리 과정에서 우선 족보를 통해 가계도를 만들고 호적의 사조를 비교해 개개인의 직역을 파악했다. 그런데 간혹 족보에 등장하지 않고 호적에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이들이 그런 경우이다. 석문 역시 족보에는 등장하지만 자(字), 생몰년(生歿年), 배우자와 같은 개인 정보가 하나도 없이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족보를 작성할 때는 각 파나 가계의 수단(收單)을 모아 만들어 진다. 아마도 이들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가고 시간이 지나며 연락이 끊어져 족보 작성과정에서 이들의 정보와 이름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9〉 조암면 이탈자 정보

이름	직역	세대	면	리	정보
錫鼎	幼學	22	守縣內面	上洞里	
錫文	幼學	22	西上面	南山里	禹錫의 父
英俊	鄕吏	23	東上面	射觀里	
觀碩	幼學	23	達西面	聖堂里	
禹錫	幼學	23	西上面	南山里	錫文의 子

4. 사회적 지위와 혼망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는 바로 직역이다. 봉지 후손의 직역을 살펴보자. 봉지 후손 가운데 호적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25명이다. 이 중 20명은 조암면 일리에서, 나머지 5명은 다른 곳에서 등장한다. 조암면 일리에서 확인된 20명 중 19명은 유학으로 등장한다. 1명도 통덕랑(通德郞)으로 등장해

유학의 위상과 비슷하다. 조암면에 처음 정착한 창수는 1756년에 향리(鄕吏)로 1759년에는 유학으로 등장한다. 창수가 처음 유학을 칭하게 된 것은 18세기 중엽으로 유학의 수가 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19세기처럼 그 사용이 일반화된 시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조암면 정착부터 유학 직역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향리 가문의 경제력과 사회적 위상 때문일 것이다. 조암면을 떠난 5명의 직역도 향리가 된 영준을 제외하면 모두 유학이다. 호적의 직역을 사회적 지위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유학 직역은 더 이상 양반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따라서 19세기 이후의 직역을 토대로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는지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부분의 봉지 후손은 19세기 이후의 인물이기에 이들의 유학직역 사용이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봉지 후손의 사회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것은 혼인망의 분석이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혼인이 본인과 본인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비슷한 급 혹은 상위의 가문과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향리들도 철저히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통혼권을 형성해나갔다. 향리들은 주로 주변 향리 가계와 혼인했다고 알려져 있다.[27] 조상이 세거하던 읍치를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한 봉지 후손들의 통혼권을 살펴본다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배우자에 관한 기록은 본 연구의 주 자료인 호적과 족보에 모두 등장한다. 족보에는 처의 성관만 기록되어 있어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호적보다 많은 구성원이 등장한다. 족보에는 봉지 후손이 총 64명 등장하지만 호적에는 25명만 발견된다. 호적에는 배우자의 다양한 기록이 존재하는데 본관뿐만 아니라 사조의 기록(四祖)이 기재되어 있고 그 사조가 호적의 본문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 연구에 용이하다. 호적의 본문 호적을 통해 확인한 조암면 일리 거주 봉지 후손 20명 가운데 9명의 배우자 가족의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나머지 11명은 아쉽게도 대구 호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일 수도 있고, 대구에 살지만 호적에 등자하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 봉지 후손의 배우자 본관에 대한 정보는 호적과 족보를, 직역 및 거주지는 호적을 이용

27) 이훈상, 1990 앞의 책.

해서 분석해 보겠다.

호적과 족보를 이용해 봉지 후손 40명의 배우자 본관을 확인했다. 이들은 다양한 성관과 혼인을 맺은 것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경주 최씨 4명, 영천 이씨 3명, 7개 성관이 2명 등장한다. 그 외 절반에 가까운 19명의 배우자는 각기 다른 본관의 인물이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경주 최씨와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주 최씨 4명 중 3명은 호적을 통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 명 모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 즉 거주지가 달라 단순히 성관만 일치하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후기 양반 동성촌락에서는 유력 성관과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져 있다.[28] 그러나 봉지 후손들의 통혼에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성관과 통혼을 맺는 점은 동성촌락을 형성했던 평민들과 유사하다고 보인다.[29]

〈표 10〉 봉지 후손의 배우자 성관

배우자 성관	인원 수	배우자 성관	인원 수
慶州 崔	4	金海 金	1
永川 李	3	達城 裵	1
驪陽 陣	2	靈山 辛	1
金海 許	2	盆城 金	1
東萊 鄭	2	星產 白	1
文化 柳	2	星州 都	1
密陽 朴	2	星州 裵	1
星州 李	2	水原 白	1
延日鄭	2	永陽 崔	1
慶州 金	1	仁川 李	1
仁川 李	1	晋州 姜	1
金海 許	1	淸州 楊	1
水原 白	1	草溪 卞	1
江陽 李	1	河濱 李	1
		합계	40

28) 권내현, 2006「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통혼 양상: 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한국사연구』 52.

29) 김경란, 2017 앞의 논문.

배우자 성관이 다른 만큼 거주지 역시 매우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배우자 9명의 가족 거주지를 아래 〈표 11〉에 나타내 보았다. 주언과 주인의 경우 배우자의 사조가 거주지를 이동했기 때문에 두 개의 면으로 표시했다. 앞서 제시했던 〈그림 2〉 대구부 지도를 통해 대부분의 혼인이 조암면 인근에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언은 서하하동면과 달서면에 거주하였지만 두 면은 거의 유사한 지역임을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과 진우의 배우자 가족의 거주지로 나타난 감물내면(甘勿內面)과 감물천면(甘勿川面)도 동일한 면이다. 이 마을은 동남과 남쪽의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려 마을 중심부에 이르러 작은 개천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개천을 감천(甘川)이라 불렀고 이것이 면명(面名)으로 발전해 나갔다.[30] 이곳을 흔히 '감물내'라고 불렀는데 '내'는 내 천(川)을 의미한다. 잘 알려져 있는 안동의 천전동(川前洞)을 내앞 마을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 그런데 노비 이름을 발음 그대로 표기하듯이 호적의 지명도 순 한글 '내'를 한자로 표기하다보니 내(內)자를 사용해 기재된 듯하다. 이런 식으로 아래 표를 재해석하면 감물천면 2명(주인, 진우의 처)[31], 읍치에서 2명(재우, 유우의 처)의 배우자를 맞이했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곳이다. 봉지 후손은 읍치를 떠났지만 그곳과 연결을 끊어버린 것은 아닌 듯하다. 배우자의 거주지 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특정 지역 가계와 중첩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봉지 후손들의 처 거주지 위치를 살펴보면 이들의 혼인관계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우선 주언이 혼인한 집안은 서하하동면과 달서면을 주소지로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그림 2〉에 따르면 이곳은 조암면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다. 물천면(勿川面)을 지나면 바로 서하하동면이다. 또 주인과 진우의 배우자 가족이 거처한 곳은 감물천면인데 이곳은 〈그림 2〉에는 물천면으로 기재되어 있다. 물천면은 조암면의 북쪽과 동쪽을 에워싸고 있는 면이다. 주홍의 혼처 역시 매우 가까웠다. 월배면은 조암면의 동남쪽에 인접하고 있다. 읍치와는 30리 정도 떨어져

30) 대구광역시청, 『지명유래총람』. 〈http://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66#none〉

31) 周仁은 두 조암면과 감물천면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적에 따르면 감물천면에 더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감물천면에 거주한 것으로 표현했다.

있어 그리 멀다고 볼 수 없다. 유일하게 조암면에서 인접하지 않은 곳은 바로 주영의 배우자 가족이 살았던 해북촌이다. 해북촌은 대구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이처럼 봉지 후손은 대부분 가까운 곳의 인물과 혼인망을 형성했다. 호적을 통해 봉지 후손의 통혼 지역을 파악했기 때문에 많은 대구 외의 지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런 통혼 양상을 미루어 봤을 때 호적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인물들의 통혼지역도 조암면 인근일거라 추정된다.

조선후기 양반들의 통혼양상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훨씬 넓었다. 안동의 저명 양반인 풍산(豊山) 류(柳)씨의 경우 면내혼(面內婚)이 7.2%, 군내혼(郡內婚)이 27.9%, 도내 타 군혼이 67%를 기록했다.[32] 호적을 이용해 살펴본 단성의 안동 권씨 통혼권도 단성 내 비율은 26.7%에 지나지 않았다.[33] 반면 중하층의 경우 촌락내혼이 주를 이루었다.[34] 호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봉지 후손 중 50%에 가까운 9명이 대구 내에서 발견되었다. 나머지 11명의 혼처가 어디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9명이 대구 인근 리에서 거주했다는 점은 정확히 그들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표 11〉 봉지 후손의 통혼 지역

夫名	지역	
	면	리
周彦	西下下同面	太宗里
	達西面	掛耳里
周仁	租巖面	一里
	甘勿內面	甘泉里
昌壽	租巖面[35]	一里
在禹	東上面	新洞里
有禹	西上面	西門內里
鎭禹	甘勿川面	建法里
昌老	下水西面	西邊立岩里
周弘	月背面	桃源里
周榮	鮮北村	廣里

32) 김택규, 1979『氏族部落의 構造硏究』, 일조각.

33) 권내현, 2006 앞의 논문, 117-119면.

34) 이성임, 2010「18세기 경상도 단성현 법물야면의 혼인 양상」『남도문화연구』19.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직역을 살펴보겠다.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배우자의 정보를 통해 사조뿐만 아니라 남매, 숙부까지 찾아보았다. 우선 조암면 일리로 이거한 첫 세대인 20세의 인물들 배우자를 살펴보자. 창로의 배우자 조부는 유학으로 확인되지만, 오빠는 직역이 한량으로 등장한다. 창수 역시 배우자의 부(父)가 업무부군관(業武府軍官)으로 나온다. 창수의 부(父)는 조암면 일리에 세거한 경주 최씨로 대구부의 군관 직역이다. 유우의 배우자 가족을 통해 가장 다양한 직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유우의 처 조부는 재가군관(在家軍官)과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으로 등장한다.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을 명예직으로 본다면 실제 직역은 군관으로 보인다. 처부(妻父)는 한량, 업유, 순공생, 그리고 유학이라는 다양한 직역으로 등장한다. 한량, 순공생, 업유, 유학은 매우 다른 성격의 직역이다. 읍치에 거주하는 이런 직역자들은 대부분 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추정된다. 그 외 인물들은 모두 유학 직역을 사용한다. 그러나 봉지 후손의 혼반이 대구의 양반들에 닿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19세기 이후 호적에서 유학 직역이 급증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바이다. 그리고 재우 배우자의 조부와 숙부는 직역이 유학이지만 읍치에서 등장한다. 읍치에 거주하는 유학은 그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표 12〉 봉지 후손 배우자 직역

夫名	세대	배우자와의 관계	직역
昌老	20	祖父	幼學
		男妹	閑良
昌壽	20	父	業武府軍官
在禹	22	祖父	幼學
		叔父	幼學
鎭禹	22	父	幼學
有禹	22	祖父	在家軍官
		祖父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35) 호적에는 租巖面이 아닌 阻岩防面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부 里 구성도 같고 발음도 같기 때문에 두 면을 동일한 곳으로 간주했다.

		父	閑良
		父	業儒
		父	巡貢生
		父	幼學
周彦	23	祖父	幼學
		父	幼學
		叔父	幼學
周弘	23	祖父	幼學
		父	幼學
周仁	23	曾祖父	業武
		祖父	幼學
		父	幼學
周榮	23	父	幼學

조암면을 떠난 자들의 위상도 혼인관계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조암면 일리를 떠나갔던 5명 가운데 3명의 배우자 가족의 정보를 찾았다. 이들 3명의 배우자는 조암면에 남아있던 인물들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보인다. 석문 처의 부(父)는 서상면에 거주하는 유학이며, 석정의 부(父)와 남자 형제는 읍치에서 한량 및 군관을 역임했다. 가장 인상적인 정보는 바로 영준의 배우자이다. 영준 배우자의 조부는 감영의 부채 만드는 장인이었다. 배우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명은 모두 읍치로 거주지를 옮긴 자들이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조암면을 떠나 읍치로 복귀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조암면의 친척들과 어떤 갈등 때문일 수도 있고 생계 문제일 수도 있다. 조선시대 거주지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외촌으로 떠나 관과의 연결에서 멀어진 이들이 다시 읍치로 돌아와야만 했다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이 많이 떨어졌음을 암시한다. 이것을 바로 이들과 혼인한 처의 직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3〉 조암면 이탈자 배우자 정보

夫名	세대	배우자와 관계	직역	거주지
錫文	22	父	幼學	西上面
錫鼎	22	父	幼學, 閑良	月背面, 西上面
		男妹	府軍官	西上面
英俊	23	祖父	巡扇子匠	西上面

5. 맺음말

지금까지 향역을 수행하지 않은 향리 후손의 퇴촌과 정착을 살펴보았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구부 향리를 다수 배출한 달성 서씨 판서공파의 후손인 봉지의 세 아들은 대대로 세거한 읍치를 떠나게 된다. 읍치를 떠나 정착하게 된 곳은 봉지의 셋째 아들 창수 배우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던 조암면 일리이다. 창수 배우자는 경주 최씨로 조암면 일리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성관이다. 처가의 도움을 받아 창수는 조암면 일리에서 정착하고 두 명의 형들도 창수를 쫓아 이거하게 된다. 그 이후 조암면 일리에서 꾸준히 가세를 성장시켜 나간 봉지 후손들은 결국 이거 100년이 지난 19세기 중반부터는 조암면 일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성관이 된다. 봉지 후손들은 모두 유학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의 혼인망을 통해 알아보면 조선후기 상층 양반들의 결혼 방식과는 차이가 보인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성관과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맺지도 않았으며, 혼인망 역시 넓지 않았다. 또 직역을 통해 살펴본 처가의 지위도 상층의 양반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읍치를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한 한 향리 후손의 조암면 정착 과정에 대해 추적해 보았다. 흔히 향리 후손들의 퇴촌을 양반으로 신분상승을 위해서라고 이해한다. 이 기준에 맞춰서 봉지 후손의 정착 과정을 살펴본다면 분명 실패에 가깝다. 유학 직역을 사용했지만 여러 면에서 양반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어 보

인다. 그러나 양반과의 비교가 아닌 조암면 일리 정착만을 두고 생각한다면 실패라는 표현을 쓰기 어렵다. 그들은 느리지만 서서히 조암면 일리에서 성장해 나갔다. 결국 호적의 마지막 식년에는 조암면 일리의 전체 호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동성촌락의 어떤 정의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조암면 일리는 달성 서씨의 동성촌락일 수도, 잡성촌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의 정착 역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반된 답을 내릴 수 있어 보인다.

주제어 : 향리, 호적, 거주지 이전, 사회 지위, 혼망

투고일(2021. 3. 31), 심사시작일(2021. 4. 6), 심사완료일(2021. 4. 21)

〈Abstract〉

Relocation and Social Status of Hyang-ri Descendan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Jung Sunghak *

This study examined the move and settlement of Hyangri descendants who did not carry out hyangyuk(鄕役). The three sons of Bongji(鳳祉), descendants of the Panseogongpa(判書公派) of the Dalseong(達城) Seo(徐), who produce a large number of Hyangri in Daegu, left the downtown where they lived for generations.

It was Ili(一里), Joam-myeon(租巖面), where the family of Bongji's third son, Changsu(昌壽)'s spouse, lived. Changsu's spouse was Gyeongju(慶州) Choi(崔), which was the largest family name in Il-ri, Joam-myeon. With the help of his wife family, Changsu settled in Il-ri, Joam-myeon, and his two older brothers chased him to this place. Since then, Bongji's descendants, who have steadily grown their family in Il-ri, Joam-myeon, have eventually become the largest member in Il-ri, Joam-myeon, in mid-19th century.

All descendants of Bongji appear as Yuhak(幼學) in Hojuk(戶籍) However, it does not meant that their social status is very high. Their marriage network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e Yangban(兩班)'s marriag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was no overlapping marriage relationship with family who live in a specific area, nor was the marriage network broad. In addition, the position of the wife family, which was examined through occupation, is also unreasonable to be regarded as the upper class or Yangban.

It is often understood that the descendants of Hyangri left the downtown to raise their status as Yangban. If we look at the settlement process of descendants of Bongji according to this standard, it is close to failure. However, it is difficult to use the expression "failure", if we think only about the settlement of Il-ri Joam-myeon, not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aring them with Yangban. They were slow but gradually grew up in Il-ri, Joam-myeon. Their settlement also seems to be able to give conflicting answers depending on what criteria we look at.

Key Words : Hyang-ri, Hojuk(戶籍), Relocation, social status, marriage network